

대설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'복구대책지원본부' 가동

- 11.26.~28.大雪 피해지역 응급복구, 이재민 구호 등 전담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1월 26일(화)~28일(목)大雪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늘고 있어,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'복구대책지원본부'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大雪은 비닐하우스, 축사 등의 농·축산시설에 피해가 집중됐으며, 사유재산 특성상 피해조사와 규모를 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'복구대책지원본부'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 총괄반, 재난구호·심리지원반, 수습지원반,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되며,
 -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,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,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.
 - 특히, 인명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.
- 현재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* 중에 있으며, 자치단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과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.
 - * 사유재산 피해 신고·접수: ~12.8.(일), 공공시설 피해조사: ~12.5.(목)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피해지역이 수습·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”이며, “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준동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지경용 (044-205-532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추진 배경

- 중대본 대응상황 종료 후 복구단계에서 연속적인 재난관리와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본부* 운영 필요

* (근거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3(대책지원본부)

- 중대본, 지대본 대응 상황 종료(기상특보 해제 등) 이후 응급복구 관리, 피해주민 구호, 수습관리 지원, 재난자원 지원 등 복구지원 총괄 조정 필요

□ 구성 · 운영

- (방 향) 신속한 응급복구, 이재민 구호,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복구지원을 위해 관계부처·지자체, 민간 협업체계 구축·운영
- (기 간) 중대본 대응 상황 종료 後 ~ ※ 재난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
- (구 성) 복구지원총괄반, 재난구호·심리지원반, 수습지원반, 재난자원지원반,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

